

# '먹는 즐거움은 그대로' 임플란트, 시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

기사입력 2011-11-25 10:16 최종수정 2011-11-25 17:20



[박영준 기자] 먹는 즐거움을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씹고 뜯고 마시는 일까지, 구강을 통해 음식을 섭취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작기능이다. 즉 이가 건강해야 먹는 즐거움도 배가 될 수 있다.

보통 저작기능의 문제는 치아의 상실에서 오게 된다. 어린 나이에 영구치를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충치나 기타 질환 등이 나타나며,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불의의 사고 혹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영구치를 메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치과 시술이 틀니나 브릿지 혹은 임플란트다. 이 중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술은 임플란트다. 임플란트는 다른 시술에 비해 주변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 치아와 가장 비슷한 저작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미적인 기능에서도 월등하다. 틀니나 일반 보철물에 비해 불편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치아의 미적인 자연스러움이 임플란트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선택하기 전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임플란트 후 관리에 대한 걱정

이다. 시술 후 임플란트 치아와 잇몸사이에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끼어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세균이 침투해 입 냄새가 발생하거나 건강 상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치의학박사 김준헌 원장은 “임플란트 시술은 시술 후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그 수명이 정해진다”며 “평상시에도 치아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통한다면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임플란트도 자기 치아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임플란트는 무엇보다 시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 시술 기법이 발달하고 물방울 레이저 등의 장비가 이용되면서 임플란트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발전했지만,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비싼 시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임플란트 치아는 자연치아와 다르게 신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염증이 발생해도 아프거나 하는 통증이 없다. 이는 잇몸이 부어오르거나 식사 시 음식에서 피 맛이 날 수도 있지만 쉽게 인지하기 힘들다. 때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 치아에 남은 음식물을 말끔히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정기적인 치아검진도 중요하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방문하여 임플란트의 상태를 살피고 스케일링 등의 치아위생 관리에 힘쓰는 한편 치아와 잇몸 사이가 벌어져 있다면 임플란트를 조여 줄 필요가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presslife@bntnews.co.kr](mailto:presslife@bntnews.co.kr)

▶ **[단독] 2PM “첫 단독콘서트 하러 왔어요”**

▶ **조안, 단아한 이미지 벗고 베이글녀 등극**

▶ **男女 데이트비용 누가 계산? 더치페이 기준은?**

▶ **장신영 또 결혼식? 초호화 웨딩드레스 자태 공개**

▶ **고아라 민낯 종결자 등극! “동안 외모 이 정도일 줄이야”**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586691>

---